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

—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모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김젬마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박사과정

- 1 들어가며
- 2 창조 욕망에 대한 구원으로서의 모성
- 3 판도라의 상자를 봉인하기 위한 모성의 강화
- 4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성
- 5 맺음말

이 글은 SF 아동청소년문학에 나타난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모성 사이에서 가치충돌하는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 과학자들을 살펴봄으로써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가 모성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중심적 사유를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조망하는 보다 유연한 사고의 담론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모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혹은 강화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여성 과학자’ 또는 ‘포스트모던 엄마 기계’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 과학자-엄마들은 섹슈얼리티 외부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존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생산 및 설계한다. 이들은 대개 생명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과학자이자 피조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묘사되며 첨단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실험실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을 수행한다.

SF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재생산기술에 대한 논의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여성, 엄마, 과학자로서의 삶과 주체성, 행위 등이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간혀 자율성과 가능성이 배제되는 양상을 재현하는 한계와 더불어, 이들이 긍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지점들을 통해 다양한 전망을 모색하는 보다 확장된 사유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국문핵심어: 포스트휴먼, SF, 모성, 복제인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맞춤형 인간

1 들어가며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능력이 과학과 기술의 영역으로 옮겨감에 따라 모성의 개념적 지형도는 변화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 신체의 재생산 능력을 조직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신체와 모성을 변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와 기술의

관계를 둘러싸고 인간의 생물학적 재생산 영역만큼이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없다는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의 지적처럼¹, 포스트휴먼 시대에 재생산기술은 여성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포스트휴먼이란 일반적으로 유전공학의 기술로 인간의 종을 변형하거나,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혹은 인간을 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컴퓨터 과학과 나노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공지능, 로봇, 가상 현실 시스템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즉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사이버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낼 변화, 그 미래를 사는 인간을 지칭한다.² 쉽게 말해 인간과 기계(기술)의 융합으로 새롭게 정의되는 인간상을 뜻한다.

기술의 진보가 여성해방의 열쇠로 인식되는 한 여성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믿음 안에 살게 되며, 이때 기술은 ‘재생산의 횡포’로부터 여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도구가 된다. 이에 따라 생물학적 모성은 종식되며 이로써 성적 평등이 가능해진다는 논리로 귀결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술이 오히려 여성의 모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협력함으로써 재생산기술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재생산기술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공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기술 자체의 문제’로 보느냐, 이 기술이 속해 있는 문화적·정치적 상황 등에서 이 ‘기술이 갖는 방식의 문제’로 보느냐의 대한 차이로 나뉜다. 재생산과정에 투여되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은 여성 신체의 전일성을 파괴하고, 재생산 능력을 갖는 세포들과 그렇지 못한 세포들을 구별하는 새로운 이분법에 의해 모성 자체를 파편화한다.³ 이는 또 다른 방식의 차이를 생산할 뿐 아니라 모성에 대한 개념 또한 변형시킨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모성 개념은 해체되어야 하는가, 재규정되어야 하는가? 포스트휴먼 시대의 여성은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 등의 기술에 힘입어 자신의

1 주디 와이즈먼, 조주현 역,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106쪽.

2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272쪽.

3 김혜련, 「기계-인간 생성론과 포스트모성」, 『한국여성철학』 제9호, 한국여성철학회, 2008, 129쪽.

신체와 재생산 능력을 분리시켜 전통적 여성 능력으로 간주되었던 재생산 영역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으로 덧씌워진 모성의 그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이 글은 SF 아동청소년문학 중에서 자신의 직업적 윤리의식과 모성 사이에서 가치충돌하는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 과학자들을 살펴본다. 이들은 대개 생명공학, 유전공학,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과학자이자 피조물을 창조하는 창조주로 묘사된다. 첨단기술과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들은 실험실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을 수행하는 창조주이자 설계자이다.

포스트휴먼을 판가름하는 특징이 비생물적 요소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체성이 구성되는 방식⁴임을 고려할 때, 이 과학자-엄마들은 분열과 모순으로 점철된 복합적인 정체성을 지닌다. 각각 자신의 자녀를 복제인간, 휴머노이드 로봇, 맞춤형 인간 등으로 설계한 이들은 생명 창조 욕망을 발현시키는 과학자인 동시에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쥐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들의 창조적 경험이 여성으로서, 과학자로서, 엄마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것은 포스트휴먼의 조건, 가능성, 곤경 등을 복합적으로 읽어내려는 일련의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들에게 처한 여성의 실존 문제와 모성 기능의 강화 여부, 과학적 책임 및 윤리 문제 등을 짚어봄으로써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가 모성 이데올로기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국 아동문학에서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는 근래에 들어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이나, 전반적으로 포스트휴먼의 양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⁵ 기왕의 연

4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25-26쪽 참조. 캐서린 헤일스는 포스트휴먼 주체를 사이버네틱스적인 측면에서 국한해 규정하기보다 “혼합물, 이질적 요소들의 집합, 경계가 계속해서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물질적-정보적 개체”라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5 한국 아동문학에서 논의된 포스트휴먼 연구로는 유영중, 「『로봇의 별』과 포스트휴먼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이상희, 『한국 SF 동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최미경, 「아동문학에 나

구들이 광의의 틀 안에서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의 개별 양상들을 연구했다면, 이 글은 이전의 논의들이 설명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지점을 살펴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모성 개념을 되짚어보는 데 집중한다. 이는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먼에 대한 연구를 보다 다양한 주제의식에 따라 세분화하여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주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제12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작 『열세 번째 아이』(이은용, 문학동네, 2012), 제5회 비룡소 스토리킹 수상작 『복제인간 윤봉구』(임은하, 비룡소, 2017), 『아빠를 주문했다』(서진, 창비, 2018)를 중심으로 과학자 여성, 그리고 이들 창조주와 피조물인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흥미로운 서사 방식으로 포스트휴먼에 대한 기대와 전망, 그리고 한계와 모순 등을 재현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인간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나 변형”⁶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존의 인간중심적 사유를 지향하는 ‘휴머니즘’을 넘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조망하는 보다 유연한 사고의 담론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모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고 혹은 강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창조 욕망에 대한 구원으로서의 모성

임은하의 『복제인간 윤봉구』⁷는 생명 창조의 욕망을 품은 과학자 ‘윤인주’가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실에서 자신의 아들을 복제인간으로 탄생시킨 장면으로 시작

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서혜원,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등.

6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17.

7 이 작품은 ‘어린이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뽑은 ‘스토리킹’ 수상작으로 총 5권의 연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에 완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창조주인 과학자-엄마가 피조물인 봉구를 창조한 시점부터 봉구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 1권을 중점으로 분석한다.

된다. 생명 창조 욕망이 인간의 오랜 꿈으로 남아있는 한, ‘인간제조’ 신화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화 안에 존재할 만큼 강력한 서사로 작용한다.⁸ 신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조 행위가 첨단과학기술의 진보로 말미암아 인간은 창조 욕망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유물론 그리고 자연과학의 영향으로 신과 인간이 점점 멀어지면서, 현대 생물학은 스스로 창조자가 되려 하는 인간의 숙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력자 혹은 도구가 되어 왔다.⁹

그리고 여기 생명공학 박사이자 줄기세포 연구자인 윤인주는 새로운 세포로 사람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인간복제에 대한 욕망을 품고 있다. 이는 『프랑켄슈타인』의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인간 신체에 매혹되어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는 불가능한 실험에 매료되어 인간 창조 작업에 착수하게 된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과학이라는 근대 지식의 획득,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생명 창조 영역의 탐구, 과학자로서의 성취와 욕망 등을 지닌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영역에 도전하여 마침내 성공을 거두고 자신들의 피조물을 마주하자 프랑켄슈타인은 공포와 혐오감을, 윤인주는 모성이라는 강력한 경험과 마주하며 과학자로서 이들의 정체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들은 “지식의 획득이 얼마나 위험한지, 본성이 허락하는 한계 너머로 위대해지고자 야심을 품는 이보다 고향을 온 세상으로 알고 사는 이가 얼마나 더 행복한지를”¹⁰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실험실로부터 도피한다. 윤인주는 자신의 뱃속에 넣은 복제수정란이 열 달이 지나 생명체로 태어난 그 순간을 ‘살면서 가장 무

8 고대 그리스 신화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에게 불과 생명을 쥐어 준 프로메테우스, 대장간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청동 거인 탈로스, 자신의 작품에 매료된 피그말리온과 그의 조각상 갈라테이아가 있고, 중세에는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을 이용해 만든 인조인간 호문쿨루스가 있다. 이들은 모두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라기보다 신화적 혹은 화학적 상상력을 통해 탄생한 존재들이다. 18세기로 넘어오면 과학적 기술을 동원해 인간의 신체를 모방하여 만든 자동인형과 자동기계의 등장 이 이어지고, 이에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져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괴물, 그리고 목수 제페토와 나무인형 피노키오 등이 대표적 예이다.

9 한스 쿤터 가센·자비네 미늘, 정수정 역,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프로네시스, 2007, 27쪽 참조.

10 메리 셸리, 김선형 역,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12, 65쪽.

쉽고 외로웠던 순간'으로 기억한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한 그녀는 그동안 몰두해왔던 과학자로서의 성취와 욕망을 뒤로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만든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윤인주는 촉망받는 천재 과학자에서 어느 시골의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그리고 두 아들의 엄마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살아간다.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피조물을 부정하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피했다면 윤인주는 자신의 피조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돌봄을 수행한다. 물론 이는 자신이 '과학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도피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녀는 초음파로 봉구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그 순간부터 과학자가 아닌 엄마로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가시적인 존재를 시각화 기술로 가시화시키는 초음파 기술은 실험실에서 생명을 만드는 인공적인 작업에 강력한 모성적 경험을 제공한다.¹¹

한편 봉구는 엄마의 컴퓨터에서 이모와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자신이 복제 인간임을 알게 된다.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봉구는 '엄마는 나를 왜 만들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지만, 정작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엄마가 아닌 자신의 탄생을 도운 이모를 통해 듣게 된다.

그때 십이 년 전에, 나도 너희 엄마를 도왔어. 엄마가 만든 수정란을 자기 뱃속에 자리잡게 해 달라고 내게 부탁했지. 그때 나는 당연히 반대했어. 나는 의사고, 매일 매일 태어나는 아기들을 보지. 인간은 존엄하다고 배웠고,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상은 해 보지 않았거든.

왜요? 제가 가짜라서요? 하지만 저는 저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반대하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 있을 일도 없잖

11 로지 브라이도티는 초음파가 자궁 내부와 태아의 내용을 외부화시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 재현 불가능한 '기원'마저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기계적 재생산의 시대에서 생명의 작용"에 대한 시각적 재현의 승리는 생물학과 여성들의 관계가 지닌 장구하고 강렬한 역사에 새로운 한 장을 열었다고 강조한다.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94-98쪽 참조.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상상은 해 보지 않았”(98쪽)던 이모에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봉구는 인간의 존엄성을 환기시킬 만큼 근본을 뒤흔드는 혼종적 존재이다. 그녀 역시 자신의 언니처럼 봉구가 태어나자 두려움을 느꼈지만, “처음 보는 내게 살을 부비는 너의 냄새와 눈빛이 나도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99쪽) 같은 느낌을 받고,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생명 그 자체가 주는 경이로움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봉구를 어색하게 대한다.

봉구의 형인 ‘민구’는 엄마가 자신을 원본으로 삼아 복제인간 봉구를 만든 것이 자신의 약한 심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엄마의 실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수명을 더 늘리거나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봉구를 복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 봉구는 엄마가 과학자의 꿈을 포기한 것만으로, 그리고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만으로 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낀다.

그랬다. 엄마는 타고난 과학자였다. 지금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구하고 실험하고, 혼자서 뭔가를 쓰곤 한다. 물론 어디에도 발표하지는 않는 비밀 논문들이다. 그저 그게 재밌다는 엄마. 나는 그런 엄마가 멋있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만 아니었음 엄마는 벌써 유명한 과학자가 되어 세상을 누비고 다닐 텐데. (『복제인간 윤봉구』, 85쪽)

남성 과학자들의 창조 행위를 여성적인 창조능력의 결핍을 대체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궁선망’으로 본다면,¹³ 윤인주는 신체적 재생산 능력과 과학기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과학자’ 혹은 ‘포스트모던 엄마 기계’라는

12 임은하, 『복제인간 윤봉구』, 비룡소, 2017, 98-99쪽.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13 도나 해러웨이는 프랑켄슈타인의 괴물 등 인공생식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은 ‘여성이 필요 없는 남성 지식에 의한 생식’이라는 서양의 남성적 판타지를 향해 나아가는 자궁의 길 혹은 산도를 따라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도나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겸손한 목격자—페미니즘과 기술과학, @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TM를_만나다』, 갈무리, 2007, 20-21쪽 참조.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 과학자-엄마는 신현경의 『돼지 로봇 핑크』(크레용하우스, 2020)에도 등장한다. 이 작품 역시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태어난 복제인간 ‘동우’와 로봇을 연구하는 과학자-엄마 ‘윤지수’의 관계를 통해 복제인간의 정체성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다. 윤지수 역시 ‘새로운 시도’나 ‘놀라운 발견’에 끌리는 과학적 호기심에 이끌려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아이를 갖기로’ 결심하여 체세포 복제로 동우를 낳는다.

또한 윤지수는 엄마가 된 이후에도 로봇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떠날 만큼 자신의 목표가 뚜렷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세상 똑똑한 과학자면 뭐하냐, 자기 자식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100쪽)라는 말을 필연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니지만, 『복제인간 윤봉구』의 윤인주와 달리 자신의 과학적 신념이나 성취 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동우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품을수록 그리고 과학만능주의의 폐해가 자신을 탄생시켰다는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동우에게 엄마는 똑똑한 과학자이긴 하나 ‘새롭고 놀라운 것만 좋아해서 평범하고 뻥한 마음은 헤아리지 못’(30쪽)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누구보다 이성적인 엄마의 모습을 동경하던 동우는 자신이 좋아했던 차분하고 냉정한 엄마의 모습보다 자신 앞에서 평평 우는 엄마의 ‘인간적인’ 모습을 원한다. 과연 윤지수를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 자신의 분야에서 성취를 이루고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은 여성은 이기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며 이는 곧 실패한 여성성을 환기한다.

엄마는 너를 두고 실험을 한 게 아니야. 엄마는 너를 만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연구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엄마가 엄마로서 실패하면 어쩌나, 그 걱정만 했어. 네가 처음 아빠를 찾으며 울던 날, 엄마는 결심했어. 단단한 엄마가 되기로. 늘 웃는 엄마가 되기로. 그러면 너도 단단하고 행복한 아이가 될 줄 알았어.¹⁴

14 신현경, 『돼지 로봇 핑크』, 크레용하우스, 2020, 98-99쪽.

이때 여성의 선택은 해명되고 이해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치부되며 이것이 타인에게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적인’ 그리고 ‘규범적인’ 영역으로 진입 가능하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과학적 성취 혹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자-엄마의 모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자 욕망의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은 실험이 끝나자 자신의 피조물을 만든 실험실, 화학 도구, 과학이라는 학문 등에 환멸을 느끼고 자신의 고향인 제네바와 독일, 영국 등의 여행을 통해 장엄한 자연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자 하지만 그 여정에는 어김없이 그의 피조물인 괴물이 등장한다. 이로써 프랑켄슈타인은 어디에서도 괴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운명에 놓여있음을 방증한다. 한편 윤인주는 자신의 피조물을 긍정하고 끌어안음으로써 과학자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대가를 모성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자신의 피조물인 복제인간의 정체성과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창조주인 과학자의 권리가 포기되거나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의 논리가 뒤따르는데, 윤인주에게는 엄마 혹은 여성의 이름으로 수행해야 하는 모성의 당위성이 부여된다. 즉 복제인간인 봉구의 존재가 긍정되기 위해 과학자인 윤인주의 존재는 은닉되고 부정되어야 하며 과학의 영역에서 이탈한 그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모성인 셈이다.

3 판도라의 상자를 봉인하기 위한 모성의 강화

서진의 『아빠를 주문했다』는 로봇 연구원인 엄마 ‘박수정’의 아들 ‘철민’이 인터넷으로 아빠를 주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로봇이 상용화된 첨단 도시 1구역의 오토맥스사에서 일하며 철민과 둘이 살아가고 있던 박수정은 1구역에 퍼진 악성 바이러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로봇 자유 지역인 5구역으로 이사를 온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온 싱글맘’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는 기계를 비롯한 모든 인공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5구역에서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철민에게 5구역에서의 삶은 ‘사람들은 중심으로 가려고 애쓰는데 엄마와 나는 자진해서 과녁의 맨 바깥으로 튕겨나와 버린’(50쪽) 것처럼 느껴질 뿐, 그녀

의 선택이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짐작하지 못한다.

분명한 점은 그녀 역시 과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큼 무언가의 강력한 동기로 인해 이전과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몸이 약한 철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가 취하는 방식은 지나친 과잉보호로 이는 오히려 철민을 외부와 단절시킴으로써 자신과 철민의 관계를 다소 비사회적인 방향으로 형성해간다. 이러한 상황은 철민에게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궁금증과 갈망을 더욱 증폭시킬 뿐이고,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끝이 없는 슴바꼭질’처럼 회피하는 엄마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민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인터넷에서 아빠를 구매하게 된다.

철민에게 배달된 아빠 로봇의 이름은 ‘사호(대디 14)’. 철민은 로봇 금지령을 내린 엄마의 눈을 피해 자신의 아빠를 ‘조립’하며 자신에게 생긴 맞춤형 아빠와 돈독한 관계를 쌓아간다.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실제 경험이 부재한 철민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상상되고 이상화됨으로써 환상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아빠 로봇 사호는 철민과 엄마의 비사회적인 관계에 끼어드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철민의 사회성과 성장을 돕는 사회적 관계로 설정된다. 이는 곧 부모노릇의 사회적 구성이 의미하는 것이 비사회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은 여성이고, 이에 반해 남성은 사회와 문화를 대표한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¹⁵

사호는 철민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철민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아빠가 되어주고자 약속한다. 철민은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억압된 감정들을 사호를 통해 해소한다. 박수정이 철통 보안과 감시 시스템으로 철민을 보호해왔다면 사호는 박수정의 이 견고한 시스템을 가볍게 해킹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점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¹⁶ 사실 사호가 박수정

15 낸시 초도로우, 김민예숙·강문순 역,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134-135쪽 참조.

16 박수정은 1구역에서 로봇 연구원 생활을 할 때 자신이 만든 각종 로봇들을 집에 두고 철민의 감시 카메라 용도로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자신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동안 철민이 무엇을 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추후 사호는 시스템 해킹으로 인질극을 벌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의 시스템을 해체시키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회로’를 찾기 위함이다. 사호는 오토맥스에서 기획하는 ‘패밀리 로봇 시리즈’ 중 하나인 아빠 로봇으로 설계되었으나, 개발 도중 결함이 발생하여 폐기된 로봇인데 ‘파더’라는 마음의 회로 설계자에 의해 박수정의 집으로 배달된 것이다. 파더는 마음의 회로를 통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진화하기 위한 계획을 지니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다.

파더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6구역에 버려진 나를 세상으로 보내 준 사람이 파더야. 파더가 말했어. 오토맥스 최고의 연구진이 마음의 회로를 개발했다고. 로봇이 그걸 장착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명체로 진화할 수도 있다고 했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가 되는거야. 파더는 마음의 회로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나를 보내 주겠다고 했어. 그걸 가져오면 진짜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지.¹⁷

사호는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한 마음의 회로를 찾기 위해 오토맥스 연구원이었던 박수정에게 정보를 얻고자 철민을 상대로 가짜 인질극을 벌인다. 엄마로서의 취약점인 모성을 이용해 그녀의 비밀이 담긴 금고를 열게 만든 사호와 철민. 하지만 그 금고에는 박수정이 개발 중이던 ‘소년 로봇’ 사진들이 담겨 있고, 철민은 그 사진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철민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오토맥스에서 개발 중이었던 ‘마음의 아이들’ 시리즈 중 하나인 ‘소년 23호’였음을 알게 된다. 철민은 아빠를 도와 마음의 회로를 찾다가 뜻밖에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된 셈이다. 이로써 엄마에 의해 봉인되어 있던 철민의 출생의 비밀은 아빠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 밖에 나오게 된다.

박수정은 오토맥스의 연구원으로서 오토맥스가 추구하는 ‘완벽한 가족’ 구성원에 부합하는 로봇 개체들을 창조하던 중 자신이 개발한 소년23호를 아들로 삼은 것인데 작중에서 박수정이 왜 소년23호를 자신의 아들로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마음의 회로가 철민에게 심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

17 서진, 『아빠를 주문했다』, 창비, 2018, 113쪽.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급되어 있지 않다. 소년23호가 지닌 기능적 결합 혹은 비밀을 외부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파더로부터 보호해왔지만 이는 결국 철민이가 창조주인 박수정이 아닌 아빠 로봇으로부터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으로 귀결된다.

철민이 아빠 로봇인 사호와 엄마 박수정과 각각 연결되는 방식은 사뭇 대조적이다. 박수정은 오토맥스의 거대한 비밀을 움켜쥔 과학자가 아닌 자신의 피조물인 아들을 은닉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성적 돌봄으로 ‘어머니 노릇’을 수행함으로써 철민을 둘러싼 불안한 환경을 통제한다. 반면 아빠 로봇인 사호는 이상화된 가치나 미덕 등을 통해 철민의 정체성을 일깨우며 궁극적으로 철민의 성장을 돕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마음의 회로가 장착된 철민을 파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은 사호의 희생은 이들 부자의 유대감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아버지라는 환상성을 경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철민은 아무 일 없는 듯 ‘보통아이’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박수정과 철민의 관계에서 돌봄의 지속성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여전히 괄호로 묶고 철민이 자신을 규정해가는 데 있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아무리 엄마를 꼭 붙잡고 있어도 확신할 수가 없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엄마가 내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아빠를 주문했다』, 165-166쪽)

앞서 살펴본 『돼지 로봇 핑크』의 동우가 겪은 정체성 문제도 이와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우는 철민과 달리 자신의 탄생 과정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자신이 과학으로 탄생한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에 기대감과 자부심을 품으며 자신의 존재를 긍정해왔다. 그러나 동우 역시 아빠, 정확히 말해 체세포 기증자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어 갈수록 아빠의 부재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다.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는 것은 자신이 곧 복제품임을 상기시키는 것과도 같기에 동우는 자신의 유전자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비롯된 강력한 혈연고리에 대한 집착으로 괴로워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을 아빠라는 존재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는 동우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얼마나 닮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임을 깨닫지만, 이 과정에서 혈연 중심,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복제인간,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통해 또 다시 변주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엄밀히 말하면 『아빠를 주문했다』에서 철민의 정체성 문제는 박수정이 초래한 결과이며 이에 대한 창조주의 변명 혹은 설명이 필요한데 작품에서 이를 소거함으로써 다시 박수정을 과학자가 아닌 엄마의 자리로 고정시킨다.

너는 박철민이 아니야. 소년 23호라고. 내가 조립식 아빠를 주문한 것처럼 엄마는 로봇 소년을 키운 거라고! (『아빠를 주문했다』, 145쪽)

오토맥스의 비밀 연구소 안에 진열된 소년 로봇들 사이에서 비어 있는 자신의 자리를 발견한 철민은 자신 또한 조립식 아빠와 다를 바 없음을 깨닫는다. 오토맥스의 ‘완벽한 가족’ 만들기는 가족 구성원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것이며,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가족을 개별화 혹은 파편화시킨다. 하지만 완벽함이라는 기준에 의거하기 위해 각 개체의 차이를 지우고 통합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오토맥스의 기획은 매우 일원적이다. 이는 “모든 생명체에는 암수가 있는 법”이며, “인간의 염색체 스물세 쌍 중에서 딱 반은 아빠에게서 오는”(22쪽) 것이라는 사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의 서사는 결국 철민의 성장 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성애에 기반한 가족주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방증할 따름이다.

4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성

이은용의 『열세 번째 아이』는 완벽한 사회가 빚어낸 맞춤형 인간과 감정 로봇의 존재를 통해 인간과 로봇의 존엄성을 재고하게 하는 작품이다. ‘시우’는 유전자 조합으로 만들어진 열세 번째 아이로 성별과 외모, 성격, 두뇌, 이성지수 및 감성지수의 수치 등마저 철저하게 프로젝트화된 아이이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로봇 연구자인 시우의 엄마는 처음부터 시우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기계든 사람이든 뭐든 완벽해야 한다는 그녀의 신념은 완벽함에 부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사회가 요구하는 완벽함에 부응하기 위해 기계인 로봇뿐만 아니라 유기체인 인간 또한 커스터마이징되는 시대에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는 점점 모호해진다. 시우처럼 선택받은 아이의 인생은 선택된 방향으로 진행되며 이는 로봇의 운명 역시 인간들의 마음대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둘은 공통적이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만든다는 것은 곧 부모가 원하는 미래대로 아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사람들보다 뛰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만큼 이 우월한 유전자는 함부로 쓰일 수 없는 것이기에 유전자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시우의 모든 것은 기록·관찰되며 데이터화되어 평가의 대상이 된다.

‘13’이라는 숫자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레오의 팔목에 새겨진 로봇의 번호처럼.¹⁸

특히 시우는 앞서 열두 명의 아이들의 아쉬운 점을 보완·수정해서 설계된 덕분에 이후 아이들의 표준 사례가 되어 수치화된 삶에 더욱 갇히게 된다. 엄마는 시우에게 시우의 경험이 입력된 ‘레오’라는 감정 로봇을 만들어준다.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 등을 인식하는 단일 감정 로봇과 달리 레오는 경험을 것을 기억해서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감정은 경험을 선행으로 발생한다는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

엄마는 레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입력된 경험을 기억하고 느끼는지 관찰하고, 레오에게서 발견된 변수들과 오류들을 보완해 더 나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레오를 시우와 함께 생활하게 한다. 작중에서 그녀의 창조 동기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그녀는 인간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위해 ‘더 진화된 로봇’을 개발하는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18 이은용, 『열세 번째 아이』, 문학동네, 2012, 133쪽. 이하 본문 인용은 쪽수만 표기한다.

더 나아가 그녀의 목적은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로봇을 만듦으로써 인간이 어디까지 창조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이 월등한 존재를 소유함으로써 남들보다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어쩌면 그녀의 창조 활동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함을 입증하기 위한 자기만족적 행위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존재는 폐기되거나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통제될 수 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윤리를 비난하는 유전공학자 ‘민 박사’에게 자신이 로봇을 만드는 것과 민 박사가 유전자 조합으로 맞춤형 아이를 만드는 일은 결국 같은 선상에 있음을 지적한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유전자를 연구했어? 당신 손으로 어떻게 유전자를 재배열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만들었지? 내가 로봇을 만든 것과 당신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맞춤형 아이를 만든 일이 뭐가 달라? (『열세 번째 아이』, 75쪽)

한편 시우는 편집을 거쳐 입력된 누군가의 경험과 기억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믿는 레오를 통해 입력된 경험과 기억이 존재 그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등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자신의 기록을 찾아나선다.

폴더를 찾았다. 가슴이 곤두박질쳤다. 프로젝트라니. 나를 낳아서 키우는 일이 엄마에게는 연구실에서 하는 일과 마찬가지로인걸까? 내가 엄마 배 속에서 열 달 동안 있다가 나온 것이 맞는지, 엄마가 나를 진짜 낳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내가 겪은 경험들까지 믿어지지 않았다. 혹시 나도 레오처럼 거짓 기억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열세 번째 아이』, 115-116쪽)

내 눈앞에 보이는 기호들, 이것들이 나의 전부인 것만 같다.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것이 나라는 존재인 것이다. 나에게 유전자를 준 사람이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나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일 것이라고 생각했

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생각과 달랐다. 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엄마 아빠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었다. DNA와 염색체, 유전자가 구성되고 재조합되는 과정만 나와 있을 뿐이었다. (『열세 번째 아이』, 206-207쪽)

엄마의 컴퓨터에서 ‘장시우 프로젝트 폴더’를 본 시우는 자신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재조합되는 과정을 거친 파편화된 존재임을 깨닫는다. 완벽에 가까운 인간으로 만들어진 시우는 자신이 오히려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임을 인식한다. 이제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시우는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숫자 너머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억압되어 있던 감정의 변화들을 겪으며 시우는 결국 ‘장래 보류 판정’을 받아 선택된 삶에서 이탈한다.

한편 중앙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감정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어기는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몇몇 로봇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자 엄마는 ‘감정 조절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통제 수단을 개발한다. 하지만 레오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이 프로그램 칩을 거부하고 엄마에게서 도망친다. 시우의 장래 보류 판정과 중앙 통제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언제나 계획대로 실행해온 그녀의 삶에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시우와 레오는 완벽함과 유용성이라는 체제에 수렴되기 위해 통제되어야 되는 대상이며 창조주인 엄마는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로써 인간과 로봇은 기계의 인간화 혹은 인간의 기계화라는 이원적 양립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로슈의 유니버설 로봇』의 작가 카렐 차페크(Karel Capek)는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을 ‘과학의 희극’이라 명명한 바 있다. 작품에서 끝까지 익명으로 등장하는 시우의 엄마는 완벽한 혹은 우월한 피조물을 빚어냄으로써 인류 전체의 존속을 위한 하나의 표준점을 제시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피조물들은 ‘오류’라는 변수를 통해 그녀

를 진퇴양난에 빠뜨린다. 어쩌면 그녀는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내몬 이 시대 부모들의 은유이자 ‘과학의 희극’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익명의 연구자일 지도 모르겠다.

5 맺음말

이상의 작품들에서 살펴본 포스트휴먼 시대의 과학자-엄마 되기는 과학자의 창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모성이 통해 구원받거나(『복제인간 윤봉구』), 피조물의 출생의 비밀을 은닉하기 위해 모성이 강화되거나(『아빠를 주문했다』), 피조물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모성이 활용되는(『열세 번째 아이』) 양상을 통해 모성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여성 과학자-엄마는 모성에 대한 강요와 지성에 대한 멸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 과학자 인물이 처해 있는 모순된 상황을 더욱 부각한다. 어쩌면 이는 지적으로 우수한 전문성을 지닌 여성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여성 과학자’ 또는 ‘포스트모던 엄마 기계’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지닌 이들은 섹슈얼리티 외부에서 재생산이 가능한 존재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생산 및 설계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휴먼은 조립되고 커스터마이징될 수 있는 파편화된 존재임을 예증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의 경험은 과학과 모성이 양립 불가능한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그침으로써 결국 이들은 과학자에서 엄마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고정된 영역에 위치지어진다.

이들의 공간적 위치가 가정에서 실험실 혹은 연구실로 옮겨짐에 따라 이들의 경험과 정체성 또한 확장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이들은 과학의 영역이 아닌 돌봄과 희생 등 모성으로 명명되는 가치 체계 안에 묶여 있다. 모성의 강화는 이들의 과학적 경험과 성취를 축소할 뿐 아니라 포스트휴먼 시대에 다양한 생리학적, 문화적, 사회적 기능들로 확장될 가능성마저 축소시킨다.

이 글에서 살펴본 텍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반전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피조물이 출생의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는 과정과 그 순간에 집중한다. 이로써 피조물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고민, 그리고 이 모든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창조주의 목소리는 소거되고 피

조물이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 가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약화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¹⁹

그럼에도 과학자-엄마를 수행한 다른 유형의 인물들을 통해 캐릭터의 취약성을 극복한 사례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내 여자친구의 다리』(『내 여자친구의 다리』, 정재은, 2018)의 경우 사이보그 발레리나 ‘연이’와 ‘노서연’ 박사가 등장하는데 노서연은 연이에게 인조다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신체 감각을 획득하게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작품이 포스트휴먼 기술로 미래 사회의 소수자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과학자-엄마의 복합적 정체성을 수행한 인물인 노서연과 이로 인해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여성 어린이 연이 사이의 연대로 의미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성취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새롭게 출현한 ‘과학자-여성’ 캐릭터를 보여주는 『우주로 가는 계단』(전수경, 2019)의 할머니 과학자 ‘오수미’ 역시 주목을 요한다. 물리학자 출신의 할머니 캐릭터를 주요 인물로 내세운 점에서 그동안 묘사되었던 할머니 캐릭터의 전형성을²⁰ 벗어난 점뿐만 아니라, 이 과학자 여성과 어린이 캐릭터가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서로 연대해가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과학과 추리라는 지성과 합리의 세계에서 여성 어린이를 소외시키지 않고 그들의 성장을 복돋아”²¹ 주는

19 김유진은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SF에서 여성-엄마 과학자가 대개 부정적인 캐릭터로 그려진 점을 지적하며, 윤리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복제인간을 만들거나(『복제인간 윤봉구』 유전자 조작으로 감정 기능은 제거하고 이성 기능만을 강화한 자녀를 창조하는(『열세 번째 아이』) 등 여성-엄마 과학자가 오직 자기 욕망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화하는 인물로 묘사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본고는 과학자-엄마와 자녀와의 관계, 그중에서도 이들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정된 작품들을 주요 분석함으로써 포스트휴먼 기술과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했다. 김유진, 「복제인간, 인공지능, 포스트휴먼에 투영된 어린이 SF」, 『언젠가는 어린이가 되겠지』, 창비, 2020, 113-116쪽 참조.

20 대체로 아동청소년 문학에 나타난 할머니 캐릭터는 도시보다는 시골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시 감각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손주에게는 관대하지만 며느리에게는 핀잔을 주며 박하게 대하는 이중성을 띠는 등의 전형성을 드러낸다. 즉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먼 감정적이고 투박하지만 속정이 깊은 캐릭터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21 김유진, 앞의 글, 114쪽.

서사의 등장이라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여성들, 생물학, 테크놀로지는 개념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나만의 온당한 연결지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이질적인 그리고 잠재적으로 모순적인 연결지점들을 공유한다.²² 기술과학이 인간과 결합하게 되면서 포스트휴먼 시대의 재생산기술은 다양하고 자유로운 주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측면 등에서 복잡한 질문을 야기한다.

SF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재생산기술에 대한 논의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부분인 만큼, 복합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성, 엄마, 과학자로서의 삶과 주체성, 행위 등이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간혀 자율성과 가능성이 배제되는 양상을 재현하기보다, 긍정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지점들을 통해 다양한 전망을 모색하는 보다 확장된 사유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메리 셸리, 김선형 역, 『프랑켄슈타인』, 문학동네, 2012.

서진, 『아빠를 주문했다』, 창비, 2018.

신현경, 『돼지 로봇 핑크』, 크레용하우스, 2020.

이은용, 『열세 번째 아이』, 문학동네, 2012.

임은하, 『복제인간 윤봉구』, 비룡소, 2017.

단행본

김유진, 『언젠가는 어린이가 되겠지』, 창비, 2020, 113-116쪽.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3, 272쪽.

낸시 초도로우, 김민예숙·강문순 역,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2 로지 브라이도티, 앞의 책, 132쪽 참조.

2008, 134-135쪽.

도나 해러웨이, 민경숙 역, 『검손한 목격자—페미니즘과 기술과학, @제2의_천년.여성인간©_앙코마우스TM를_만나다』, 갈무리, 2007, 20-21쪽.

로지 브라이도티,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94-98, 132쪽.

주디 와이즈먼, 조주현 역, 『페미니즘과 기술』, 당대, 2001, 106쪽.

캐서린 헤일스,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열린책들, 2013, 25-26쪽.

한스 쿤터 가센·자비네 미늘, 정수정 역, 『인간, 아담을 창조하다』, 프로네시스, 2007, 27쪽.

Cary Wolfe, *What is posthumanism?*,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0, p.17.

논문

김혜련, 「기계-인간 생성론과 포스트모성」, 『한국여성철학』 제9호, 한국여성철학회, 2008, 127-153쪽.

서혜원, 『한국 아동소설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83쪽.

유영중, 「『로봇의 별』과 포스트휴먼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331-361쪽.

이상희, 『한국 SF 동화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연구』, 공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85쪽.

최미경, 「아동문학에 나타난 비인간캐릭터의 포스트휴먼적 기능 연구-마해송 동화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4호,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9, 167-202쪽.

Abstract

Being a Scientist-Mother in the Posthuman Era

—Focusing on maternal ideologies that appear in Korean children's Science Fiction literature

This paper investigates female scientists who are ‘mothers’ who experience a conflict of values between professional ethics and motherhood that appear in South Korean children’s science fiction literature. This paper analyzes how becoming a scientist-mother in the posthuman age comes up against maternal ideology. Therefore, this paper adopts a critical perspective of posthumanism as a paradigm that goes beyond a humanism that strives for a human-centered approach and instead provides a flexible way of think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echnology. Subsequently, I discuss how this understanding of humanism changes or strengthens the concept of maternity.

Scientist-mothers, who have dual identities as “female scientists” and “postmodern mom machines” produce and design creations with various methods as beings that can reproduce outside of sexuality. They are commonly depicted as scientists who made great achievements in bioengineering, genetic engineering, and robotic engineering, as well as a creators of creations. Additionally, they use advanced technologies and their capacities to reproduce using other methods in the lab.

In Korean children’s science fiction literature, discussions of the technologies of reproduction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women and children,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m from complex and diverse angles. Therefore, this paper interrogates how the life, subjecthood, and actions of the female, mother, and scientist are embedded within the ideology of motherhood, which functions to exclude autonomy and possibility. This paper also highlights the need for expanded reasoning that searches for various perspectives by combining various points in a positive manner.

Key words: Posthuman, SF, Motherhood, Clone, Humanoid, Customized human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